

# ‘청정 요건’ 재정 투명화 - 깨끗한 사생활 순

## ■ 현대불교신문 창간기념

### ‘한국불교 청정도는’

1994년 조계종 개혁. 그것은 다른 어떤 승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자는 모두의 다짐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불교의 승가는 어떤 모습인가. 청정해야 할 승가는 ‘오염’돼 가고 있고, 무분별한 세속화로 불교는 ‘상풍’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

변해야 한다. 이에 ‘현대불교’는 창간 11주년을 맞아 한국불교가 청정성을 회복하고 진정한 승가로 돌아가기 위한 길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출·재가 오피니언 리더 224명의 목소리를 들었다.

## # 한국불교 청정도

이번 설문 결과 불교계 오피니언 리더들은 출·재가를 막론하고 한국불교의 청정도에 대해 낮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의 생명이 청정성에 달려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에 견주어보면 한국불교는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는 결론을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 ‘출·재가자의 청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출·재가자 모두 평균 6점대를 받았다. 6점대를 매우 낮다고 분석한 이유는 5~6점을 준 응답자들이 청정도가 낮은 반응을 보였고, 어느 정도 괜찮다는 응답자의 경우는 8점 이상을 주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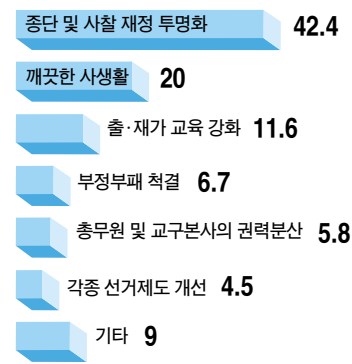
연준근 동국대 통계학과 교수는 “일정한 기준 없이 응답자가 자의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설문에서는 응답자가 적용한 기준을 평가척도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 경우 평균적인 6점대를 선택한 상당수의 응답자들이 청정도가 낮다고 평가했기 때문에 6점을 낮은 점수로 분석해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출가자 보다 재가자들이 한국불교의 청정성 훼손을 더 높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출가자는 스스로에게 6.4점, 재가자에게 6.1점을 준 반면, 재가자는 출가자에게 6.1점, 스스로에게 5.8점을 매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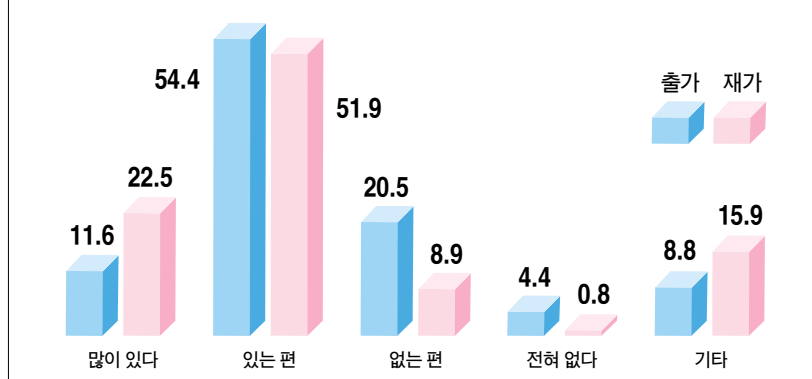
청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국불교의 세속화·권력화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재가자들은 출가자 보다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출가자는 ‘위험한 수준’ ‘우려할 만한 상태’라는 응답이 각각 12.5%, 33.9%였지만, 재가자는 ‘위험한 수준’, ‘우려할 만한 상태’를 꼽았다. 이를 합하면 출가자의 46.4%에 비해 재가자는 59.7%에 달한 것이다. 여기에서 출가자도 스스로 한국불교의 세속화·권력화에 대한 위험성을 상당히 높게 판단하고 있는 점은 간과해선 안 될 중대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한국불교가 청정해지기 위한 제1요건을 묻는 문항에서는 출·재가 모두 ‘종단 및 사찰 재정 투명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러나 시각차도 드러났다. 재가자는 재정 투명화(58.9%), 스님들의 깨끗한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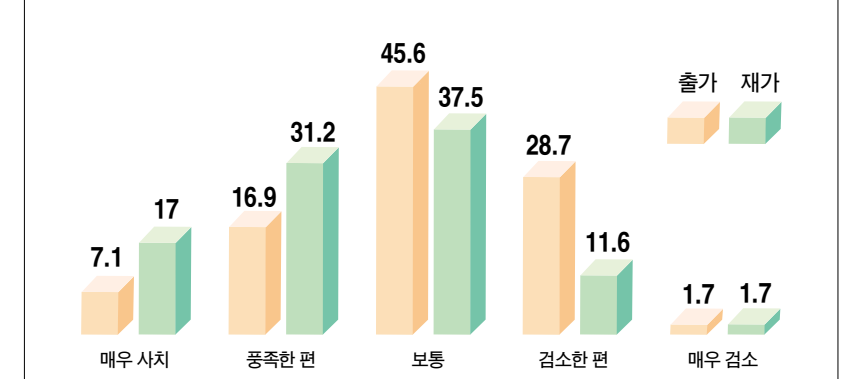
## ■ 청정 제1조건은? (단위%)



## ■ 각 종단 인사·행정에 부정부패가 있다고 보는가? (단위%)



## ■ 스님들의 소비행태 (단위%)



생활(16.1%), 부정부패 척결(8.2%) 순으로 응답했지만, 출가자는 재정 투명화(25.8%), 스님들의 깨끗한(검소한) 사생활(24.3%), 출·재가 교육 강화(16.9%)를 차례로 꼽았다. ‘종단 및 사찰 재정 투명화’와 ‘스님들의 깨끗한 사생활’이 우선 순위로 꼽힌 점은 재가는 물론 출가도 한국불교의 청정도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 # 종단 및 사찰 운영

불교계 오피니언 리더들은 불교계 각 종단과 사찰운영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번 설문에서 확인됐다. ‘각 종단의 인사·행정에 부정부패가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가자의 66%와 재

해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33.2%의 스님들과 39.5%의 재가자들이 ‘사찰운영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꼽았고, 스님 31.2%와 재가자 36.6%의 응답자들은 ‘재정 공개’를 선택했다. 두가지 의견 모두 재가자의 수치가 높게 나타난 점은 사찰운영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재가불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다음 순위로 재가자는 ‘투명한 불사’(13.3%)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사’(8.9%)를, 출가자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사’(13.3%) ‘투명한 불사’(12.5%)를 들었다.

‘청정한 교단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종법과 규정 외에 별도의 청규를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출가자에서 더 높게 나타나 눈길을 끈다. 스님들은 25%가 ‘반드시 필요하다’, 32.1%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 청정성 훼손 6.4~6.1점으로 재가자들 더 우려

## 세속화·권력화 46.4% 출가자들도 ‘위험한 수준’ 판단

## 청규 제정 부정적 견해 높고 ‘지키지 않는 풍토’ 지적

## 사찰 사암 소유는 포교활동-노후복지 일환 의견 대립

가자의 74.4%가 많이 있거나 있는 편이라고 답해 절반이 훨씬 넘는 수치를 보인 것.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많이 있다’는 응답은 스님들이 11.6%, 재가자들은 22.5%였지만, ‘있는 편’이라는 답은 출가자가 54.4%, 재가자가 51.9%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재가자는 물론 심지어 스님들까지도 종단운영과 관련해 부정부패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셈이다. 반면 ‘전혀 없다’는 응답은 스님들과 재가자가 각각 4.4%, 0.8%에 불과했고, ‘없는 편’이라는 응답은 출가자가 20.5%, 재가자가 8.9%였다. ‘모르겠다’를 꼽은 응답자는 출가 7.1%, 재가 13.3%였다.

투명한 사찰 운영을 위한 우선과제를 묻는 문항에서는 사찰운영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재정을 공개

를 꼽아 청규 제정이 필요하다는 답변(57.1%)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보다 많았다. ‘현행 종법과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좋다’ ‘필요치 않다’는 의견은 각각 29.4%, 13.3%였다.

그러나 재가자들은 청규를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비슷하게 조사됐다. 가장 많이 꼽은 항목은 ‘현행 종법과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좋다’로 41%에 달했고, 9.9%는 ‘필요치 않다’는 응답을 보였다. 50.9%가 청규 제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셈이다. ‘반드시 필요하다’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은 각각 29.4%, 19.7%로 나타났다.

청규 제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출·재가자 중에는 ‘제도 자체’보다 ‘제도를 지키지 않는 풍토’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았다.

## # 스님들의 생활

스님들의 생활과 관련해서는 재가자에 비해 출가자들이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줬다. 또 재가자들은 스님들의 소비행태와 사찰 사암 소유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출가자들은 ‘스님들의 사찰사암(토굴 포함) 소유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32.2%가 ‘문제될 것 없다’고 응답했고, ‘작은 규모라면 괜찮다’는 응답자도 19.8%에 달해 사찰사암 소유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반해 재가자들은 ‘안하는 것이 좋다’(34.9%)를 가장 많이 꼽았고, ‘절대 안된다’는 응답도 29.5%나 됐다. 사찰사암 소유를 부정적으로 보는 출가자의 응답도 41.9%에 달했다.

순위별로 보면, 스님들이 ‘문제될 것 없다’ ‘안하는 것이 좋다’ ‘절대 안된다’ ‘작은 규모라면 괜찮다’ 순으로 꼽은 것과 달리 재가자는 ‘안하는 것이 좋다’ ‘절대 안된다’ ‘작은 규모라면 괜찮다’ ‘문제될 것 없다’ 순으로 선택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엇갈린 반응을 보인 이유는 사찰사암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출가자는 사찰 사암을 ‘종단에 등록된 사찰사암’으로 이해한 경우가 많았고, 재가자는 종단 등록과 관계없이 공사할 이외의 모든 사암을 사찰사암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또 출가자들은 사찰사암의 포교활동이 공사할에 비해 더 활발한 현실을 높게 평가한 반면, 재가자들은 스님들이 사보정재를 노후복지의 일환으로 전용하고 있다고 이해한 경우가 많았다.

스님들의 소비행태를 묻는 문항에서는 출가자에 비해 재가자가 보다 비판적인 성향을 보였다. ‘매우 사치스럽다’와 ‘풍족하게 쓰는 편’을 꼽은 출가자는 각각 7.1%, 16.9%였지만, 재가자는 17%, 31.2%에 달해 출가자의 두 배가 넘었다. 반면 ‘검소한 편’이라는 응답은 출가자는 28.7%였으나 재가자는 이에 훨씬 못미치는 11.6%에 불과했다.

**설문조사팀**  
**박용영·유철주·노병철 기자**  
**이은비·김강진 기자**  
**부산 주재 찬미희 기자**  
**대구 주재 배지선 기자**

## 설문 응답자 명단 (224명)

### ■ 출가자

개운(안산사암연합회) 경성(해인사 회랑대감인) 경일(불인종 총무원장) 광민(광주 무각사 주지) 광유(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사회부장) 남정(총화종 총무원장) 대성(부산 범어사 주지) 대운(선학원 이사) 대화(본원종 총무원장) 덕문(조계종 중앙총회의원) 덕진(출산 정보사 주지) 도공(보은 법주사 주지) 도명(고양사암연합회) 도문(조계종 중앙총회의원) 도원(부산 삼광사 주지) 돈관(불광사 경북불교대학장) 동봉(진주 여래원 주지) 두백(장성 백암사 주지) 명수(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재무부장) 문산(해남 대흥사 주지) 무이(진각종 교무부장) 무원(천태종 사회부장) 문덕(천태종 총무원장) 백문(태고종 교무부장) 범수(군위 신흥사 주지) 범어(고창 선운사 주지) 범법(육천 백암사 주지) 범안(조계종 기획실장) 법은(중앙사암연합회) 법은(태고종 대구경북총무원장) 법정(연수 수덕사 주지) 법타(영천 은해사 주지) 법해(동두천사암연합회) 법현(태고종 사회부장) 법해(대구사원주지연합회) 보각(중앙승가대 교수) 보각(조계종 중앙총회의원) 성관(실천승가회 공동의장) 성수(부여사암연합회) 성은(사회복지법인 인덕원 대

표이사) 성웅(김천 직지사 주지) 성원(거제 금강사 주지) 성일(화성 신흥사 주지) 성제(영동 반야사 주지) 성직(조계종 중앙총회의원) 수진(부산 해인정사 주지) 수현(조계종 전국비구니회 부회장) 승원(가평 상하면사암연합회) 승해(조계종 전국비구니회 규정부장) 영담(조계종 중앙총회의원) 이형진(진각종 문화사회부장) 이원(조계종 포교부장) 일정(보령사암연합회) 일화(조계종 중앙총회의원) 자민(조계종 전국비구니회 부회장) 자철(태고종 총무원장) 장곡(조계종 중앙총회의원) 장적(조계종 중앙총회의원) 재문(조계종 전국비구니회 부회장) 정덕(부산 미륵사 주지) 정범(조계종 사회부장) 정덕(조계종 전국비구니회 부회장) 정여(부산 여여선원 선원장) 정은(보령시 청소년상담실) 정호(조계종 중앙총회의원) 종광(조계종 중앙총회의원) 종삼(구례 화엄사 주지) 종민(육천

청소년개발원장) 종훈(마천사암연합회) 주경(서산 부석사 주지) 지거(서울 보현의 집 원장) 지관(김포 용화사 주지) 지성(대구 동화사 주지) 지암(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지현(조계종 중앙총회의원) 지홍(조계종 중앙총회의원) 진욱(여수 석전사 주지) 진원(부산 내사 주지) 진화(광주 증심사 주지) 청안(예천 용문사 주지) 초격(조계종 중앙총회의원) 춘광(천태종 총무원 부원장) 탁연(조계종 문화부장) 태진(조계종 호법부장 직무대행) 해월(법상종 총무원장) 행법(광주 선덕사 주지) 허은(조계종 재무부장) 현관(조계종 교육부장) 현진(청주 관음사 주지) 혜각(태고종 중앙총회의원) 혜봉(이천사암연합회) 혜암(제천불교총연합회) 혜향(광주불교사암연합회) 홍파(관음종 총무원장) 화암(양평사암연합회) 화성(진각종 총무원장) 효립(동해 삼화사 주지) 효진(남해 화방동산 주지)

### ■ 재가자

강수균(대구대 교수) 고경순(대구자비전화회 회장) 고영일(우리회계법인 대표이사) 공병수(부산불교신도회 회장) 곡인호(중앙인사위원회 불자회장) 권순국(서울대 교수) 권오창(조계종 7교구신도회장) 권용애(불교저널 21 편집장) 권

탄준(금강대 교수) 김광하(작은손길 대표) 김덕수(대구서부경찰서법무회) 김문기(원주신행단체협의회장) 김범수(인하대 교수) 김성식(포항청년연합회장) 김성철(동국대 교수) 김용림(밸런트) 김용표(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김윤환(부산불교실업인회) 김용철(중앙승가대 교수) 김익희(조계종 중앙신도회장) 김익석(대한불교청년회장) 김인수(광주·전남 포교사단장) 김재일(동산반야회 이사장) 김종명(경남도청불자연합회장) 김진관(조계종 서울광역시신도회장) 김찬호(공주부터다아리스클럽회장) 김창배(광주 서부경찰서법무회) 김태완(부산 무심선원장) 김희옥(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발전센터 원장) 남궁현(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 류성영(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회장) 박경준(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 박광서(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박성필(경주불교방송 총괄국장) 박순애(문사수법회 법사) 박세일(서울대 교수) 박시하(불교방송 경영기획실장) 박은용(부산불교교수불자회장) 박유아(원주선안봉사단장) 박진수(대구광역시신도회 사무국장) 박주자(부산불교직접자부사회장) 배호임(부산불교거사위원회) 백남석(인라당생명공동체 공동대표)

사공정규(동국의료원 포항병원불교회장) 사상호(부산불교신학 이사장) 사재동(백제불교대학 원장) 사재영(동국대 강사) 성상현(보림회 지도법사) 성태용(우리는선우 이사장) 손기원(지혜경영연구소장) 송도근(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수석부회장) 송찬우(중앙승가대 교수) 신대윤(조선대 교수) 신상용(윤불련 대구지역회장) 왕선자(부산여성불자회) 우희중(서울대 교수) 유병구(경중소리 대구지부장) 유영식(광주불교운전자불자회) 윤세원(인천전통대 교수) 윤원철(서울대 교수) 윤창희(민족사 대표) 윤해월성(한국불교여성회 광주지부장) 이경훈(광주전남교사불자회) 이기표(부산 보현의집 원장) 이득환(조계종 강화지역신도회장) 이만희(대불정 대구지부장) 이상구(문경불교청년회장) 이신정(광주 금륜회) 이연재(한국인연불자연합회장) 이홍재(남산대 대표) 이원철(일산불교병영 한방병원장) 이인자(前 불교여성계발원장) 이재열(유마선원) 이종서(조계종 교법사단장) 이종표(전남대 교수) 이진욱(대전공

역시청불자연합회) 이충용(조계종 7교구신도회 부회장) 이탁수(전국금강산불자연합회 운영위원장) 이광태(한국불교학회) 이해숙(생명 나눔실천본부 사무총장) 이호식(한국불교청년실업인회) 이황우(새마을선원장) 임승택(경찰청 불교회장) 임완수(전국교사불자연합회장) 임해수(대불련 대구경북총무원장) 임희근(불선연설(대구교사불자회) 안성미(부산불교보현회) 양성홍(조계종 포교사단장) 염준근(동국대 교수회장) 오희창(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장) 왕선자(부산여성불자회) 우희중(서울대 교수) 유병구(경중소리 대구지부장) 유영식(광주불교운전자불자회) 윤세원(인천전통대 교수) 윤원철(서울대 교수) 윤창희(민족사 대표) 윤해월성(한국불교여성회 광주지부장) 이경훈(광주전남교사불자회) 이기표(부산 보현의집 원장) 이득환(조계종 강화지역신도회장) 이만희(대불정 대구지부장) 이상구(문경불교청년회장) 이신정(광주 금륜회) 이연재(한국인연불자연합회장) 이홍재(남산대 대표) 이원철(일산불교병영 한방병원장) 이인자(前 불교여성계발원장) 이재열(유마선원) 이종서(조계종 교법사단장) 이종표(전남대 교수) 이진욱(대전공

※ 출가자 4명, 재가자 3명은 신분공개를 원치 않아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